

실적·지표 견조, 하락은 심리 탓… “공포가 만든 패닉셀”

AI버블 우려, 아시아 증시 급락

펀더멘털 견조해도 심리 흔들
연준 금리 불확실성 지속 국면
원화 약세 심화에 외국인 이탈
개인 매수 확대에도 수급 불안

‘인공지능(AI)버블’ 공포로 코스피·닛케이225·상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3대 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0.88%~1% 안팎으로 올랐지만 아시아 증시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AI거품 논란이나 금리 불확실성에 비해 하락 폭이 너무 컸다”며 “과도한 공포가 부른 패닉셀”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거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방향성 전망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AI거품’ 공포에 사로잡힌 증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발 AI 거품 우려였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최고경영자)는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주 거품이 상당해 향후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도 “10~



코스피가 전 거래일(4004.85)보다 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장을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며 골드만삭스의 과열 경고에 가세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룬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자산운용이 9월 말 AI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풋옵션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불안이 증폭됐다.

AI공포는 미국 증시를 강타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95% 하락했다. 11월 들어서는 3.47%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낙폭이 이번 주 2.74%, 11월 들어 6.12%에 달했다. AI 관련 종목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AI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는 11월 들어 낙폭이 22.76%에 달했다. AI 관련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X)의 ‘AI&테크놀로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 들어 10.3% 하락했다. 뉴욕발 약재는 코스피, 닛케이225, 상해 종합지수, 홍콩恒生지수 등 아시아 증시를 낭떨어지로 몰아넣었다. 거품 논란은 당분간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체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 시장전략가는 지난 20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의 투자자 노트에서 2000년 IT 거품과 현 상황에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버블 우려는 반복적인 우려와 해소 과정을 통해 급락 빈도가 억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AI 설비투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투자 눈높이 낮춰야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21일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16% 내리며 9만4800원까지 밀려났다. 지난달 31일보다 11.81%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외국인은 팔았지만 개인만 2조6838억원 어치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이날 포함 11월들어 총 12조6325억원 순매수다. 과거 아시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단기 낙관론은 여전하다. 정해창대신증권 연구원 “현재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5배 수준으로 평균 대비 부담이 낮아진 반면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11월 한 달 동안 8.3% 증가해 실적 펀더멘털은 견조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동성 속도조절 과정에서 나타난 과열해소 국면”이라고 말했다.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비롯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년 증시 전망에서 코스피가 5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JP모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인하, 기업 투명성 강화가 이뤄지면 코스피는 5000을 넘어 최대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AI거품 외에도 시장을 흔들 변수들이 많아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투자자들은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지표는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

졌다. 핵심 지표인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9월 소매 판매도 동시에 나온다. 두 지표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과 소매 물가 수준, 나아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인플레이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진정될 것”이라며 “유동성 우려에 대한 정점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12월 금리 동결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추락하는 원화까지도 걱정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평균 145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올해 1월(1455.5원)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건 2009년 3월(1453.35원) 이후 16년여 만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환율에 따른 원화 약세,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인은 14조1768억원어치를 팔았다. 시총 보유비중은 35.52%에서 34.74%로 줄어들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빚투’ 사상최대, 반대매매 급증… 개인 리스크 확대

신용거래용자 잔액 27조 근접
반대매매 비중·금액 모두 급증
금리 변수 겹치며 시장 변동성 ↑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26조8471

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빚투’로 불린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급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증시 급락세가 지속되면 ‘빚투’ 계좌에서 강제로 일괄매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빚투는 위험성이 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반대매매의 위험성이 커지고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일평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5% 수준으로, 1%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올해 평균치인 0.7%의 2배 수준으

로 뛰었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156억원으로, 올해 일평균 약 70억원과 지난달 평균치 68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빌린 신용융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다시 되파는 것으로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 강제로 일괄 매도된다.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상승장에 모험을 거는 투자자도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7~21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상위권에 ‘KODEX 레버리지’(1천340억원)가 1위에 올랐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200’(620억원)도 순매수 3위에 올랐다. 코스닥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410억원)도 7위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키웁니다
호서대학교

국내 최초

AI 특화 단과대학 설립 (2019)
 바이오의과학 GLP, GCP 선정 (2024)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 (2024)
 반도체 패키지 랩 설립 (2025)